

**공동체 소식**

## 부활 제 6주일



하느님,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소서.



■ 5월 기도지향

- 이우석(프란치스코), 김인자(글라라) 가정
- 차호섭(요셉), 최선운(마리아) 가정

■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성모 마리아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교회는 전례 주년을 통하여 구세사를 기념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며,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의 본보기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서 특별히 공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 성모의 밤

- 일시 : 5/10(금) 오후 8시
- 장소 : 본당
- 지향 : 저희 공동체를 성모님께 봉헌하며, 성모신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 북미주 사제 컨퍼런스

- 일시 : 5/13(월) ~ 17(금) 4박 5일
- 장소 : Howard Johnson Hotel(L.A)

■ 기타

- 지난 주일,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참석 가운데 사제관과 회관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첫 켈기도 모임을 5/21(화) 오후 8시 미사 후, 회관에서 갖자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오늘 야외 미사 후 점심식사는 형제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공동체 점심 예찬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 갖으시길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30	210	163/164	244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미카엘)/이원준(요한)	
차주	문호진(안토니오)	안광민(제임스)
	문예나(요안나)	고평원(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정수한(베드로)	
금주	박혜정(가타리나)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야외미사
금주	야외미사
차주	가족과 함께(마더스 데이)

■ 헌금 봉사자

	금주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최은미(아네스)
	정수한(베드로)	문석찬(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b>4/21</b>	97명	435불	1,190불
<b>4/28</b>	103명	689불	1,980불

☞ 회관 비품 마련을 위해 도네이션 해 주신 정준구(파비아노), 안경혜(리오바), 김순임(테레사)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남기신 평화를 얼마나 잘 지켜 나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당신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성화해설**

**갯세마니에서의 고뇌**  
**(안드레아 만테냐 1459, Tempera on wood, 런던 내셔널갤러리)**  
 만테냐는 갯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자리를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자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성스러운 자리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고뇌에 싸여 기도하는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던 '고통 중에 함께 함'을 천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사도 15,1-2.22-29 <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화 답 송 :** 

찬 생 이 하 느 님 을 높 여 기 리 게 하 소 서

- 하느님 저희를 어여뵈 여기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저희에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
- 정의로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여라 춤추며 기뻐하여라. ◎
- 하느님 당신을 높여 창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께 하소서. ◎

**제 2 독서 :** 욕지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 14,23-29<또는 17,20-26> <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



유대인 지혜의 저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만드셨다고 적혀있다.

로마 황제가 한 랍비의 집을 방문하여 “하느님은 도둑이다 어째서 남자가 잠들어 있을 때 허락도 없이 뼈를 떼어 갔는가?”라고 말했다. 이 때 옆에있던 랍비의 딸이 말참견을 하였다. “황제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좀 빌려 주십시오.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 조사시켰으면 하는데요.”라고 했다 황제는 “그건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딸은 “사실은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훔쳐 갔는데 그 대신 도둑은 금 그릇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사하여 연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황제는 “그것 참 부러운 일이로군 그런 도둑이라면 내 집도 털어 갔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의 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일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일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갈비뼈 한 대를 훔쳐가셨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 놓으셨으니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화와 성령을 남겨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십자가상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되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내려 주십니다.

평화는 전쟁이 멈춘 상태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결국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평화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또한 나약하고 겁 많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 두고 가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협조자 곧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박해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제 1독서 (사도 15, 28)에서 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초대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늘 주님이 남겨 주신 평화를 인사하고 나눕니다. 형식적인 평화의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가정과 이웃 안에서 용서의 마음과 진실이 담긴 ‘평화’를 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울 대교구 김지영 신부 -



## 열 개의 병

어느 날 악마가 한 청년에게 열 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 아홉 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이 중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청년의 눈앞에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다. “그래, 딱 한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을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잡고 마셨다. 아찔했다. 하지만 청년은 곧 환호성을 올렸다. “야! 내가 살았구나!” 악마는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다. 악마는 다음번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의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사라졌다. 청년은 오랜 세월을 방탕하게 보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악마를 불러냈다. 얼마동안은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다. 악습에 깊이 빠져 버린 것이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다.

이제 두개의 병이 남았다. 노인은 기뻐다. 그때 악마가 남은 마지막 한 병을 ‘혹’하고 들이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그때부터 돈이라는 독약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네 청춘을 망가뜨렸지. 네가 존엄한 존재로 태어난 사실을 잊게 하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악마는 유유히 웃으며 사라졌다.



###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 31.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누구를 통하여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을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영원으로부터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삼을 이스라엘의 딸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갈릴래아 나자렛의 한 젊은 유대 여인,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이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루가 1, 26-27).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정된 어머니의 동의가 강생에 앞서 이루어져 마치 어느 모로 여인이 죽음에 이바지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여인이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카톨릭교리서, 488항).

하느님께서서는 하와의 후손 가운데 동정 마리아를 택하시어,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구원의 뛰어난 열매”입니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본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카톨릭 교리서, 508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